

제27회 임시회 목포시의회 본회의회의록

1. 일 자 : 1954(4287)년 3월 6일

2. 장 소 : 의회 의사당

3. 개의성립 :

1) 참석의원 : 15명

이복주, 명남철, 김삼성, 김남진, 진복춘, 임일남, 김팔용, 박찬규, 김경현,
김영완, 이소규, 문택호, 이문길, 정응표, 김자홍

2) 불참의원 : 3명

유정두, 이재홍, 김길환, 김경희, 김채용, 오세일

4. 의사일정 :

1) 보고사항

- ※ 제26회 의회 회의록 보고의 건
- ※ 만호동 석유저장고 철거 교섭결과의 건
- ※ 목포 광주간 통학열차 복구 건의의 건

2) 부의안건

- ※ 1953(4286)년도 목포시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의 건
- ※ 1953(4286)년도 목포시 수특회계 세입세출 경정예산의 건

5. 개회선언 : 부의장

(오전 10시 30분)

6. 회의상황 :

◇ 박찬대 서기

- 제26회 의회 회의록 낭독

◇ 부의장

- 본 회의록에 이의없으면 통과하겠음

※ 만호동 석유저장고 철거 교섭 결과의 건

◇ 교섭의원 진복춘 의원

- 관계 당국과 교섭 미진중에 있다고 보고가 있었음

※ 목포 광주간 통학열차 복구건의의 건

재석의원 15명중 전원 가결

※ 1953(4286)년도 목포시 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개정예산의 건

◇ 남기인 건설과장

- 개정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

◇ 박일남 의원

- 본 예산안은 사업 추진하기 위한 개정예산을 편성되었고 설명도 들었으니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다.

(재청, 3청)

※ 방수되고 있는 수도를 조속히 개수토록 집행부에 요청이 있었음

◇ 부의장

- 동의 성립으로 표결 하겠음

재석의원 15명중 전원 가결

- 당시 구호진료소가 도방침에 의하여 무의촌으로 이관케 된데 대하여 의원측과 시장간에 질의응답이 별지 속기록과 여히 있었음

◇ 정응표 의원

- 당시에 보건소가 있어서 아스피린 한개라도 시민에게 혜택이 있지 손해는 없으니 목포에 존속 되도록 시장, 의장 연명으로서 도에 건의하자 동의

(재청, 3청)

◇ 부의장

- 동의성립으로 표결하겠음
재석의원 15면중 전원 가결

◇ 김남진 의원

- 본 건에 있어서는 의회 대표와 학교측 대표가 교섭하게 되면 순천철도국에서는 가망성이 있는가?

◇ 하동현 시장

- 순천철도국에서 내신하게 되면 승인하게 된다.

◇ 김남진 의원

- 시장 말씀대로 의회 대표 한분과 학교 대표를 선정해서 교섭하자 동의

(재청, 3청)

◇ 부의장

- 동의 성립 되었으므로 표결하겠음
재석의원 15명중 전원 가결

※ 의회 대표로 이문길 의원으로 선정, 학교측 대표는 시장에게 일임

※ 1953(4286)년도 목포시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의 건

◇ 조운용 총무과장

-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

◇ 부의장

- 본 건에 대하여 질의응답과 대체 토론해 주기 바람

- 질의응답 약 20분간 있었음

◇ 김삼성 의원

- 본 예산안은 대체적 국고보조에 의한 수입을 삽입한 거시요. 세출은 처우개선에 의거해서 편성한 것이니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
(재청, 3청)

◇ 부의장

- 동의 성립으로 표결하겠음

◇ 김영완 의원

- 시내 북교교에서 가극을 통하여 삼학도공사 추진 상황 및 수도시설 안으로 발표하여 목포시 발전에 여론을 환기시킨 그 교재를 만든 선생님에게 의회에서 표창하고 또한 교내 일제 고사를 통하여 우수한 성적을 획득케 한 그 반을 담당하신 선생님에게는 교육감에게 건의해서 표창토록 하자 동의

◇ 이복주 의원

- 교육감을 중심으로 연구 교재로서 한 것이지 선생 개인이 복안한 것이 아니다.

◇ 이문길 의원

- 의회로서 표창은 중지하고 교육위원회 의장이 시장이니 시장에게 부탁드려 교육감을 시켜 표창토록 하자 동의 집에 참가
(동의집 수락)

- 본 동의안은 시장에게 일임키로 하고 철회

◇ 이복주 의원

- 당시 도서관 문제에 있어서는 작년도 예산에 계산되어 있고 현재 각 학교에서 논의되고 또는 중, 고, 대학생들이 진정하고 있는데 특히 향학열에 불탄 청소년들이 심히 궁금하고 있으며, 문화 도시인 목포로서 필요한데 조속히 시당국에서 개설토록 해야될 것이다.

◇ 조운용 총무

- 신년도 예산에 계산해서 개설토록 하겠다.
- 청소사무에 대하여 의원측과 집행부간에 질의응답이 약 10분간 있었음

◇ 부의장

- 회의록 서명에 정응표, 이문길 의원을 지명

7. 폐회선언

(오후 1시 40분)

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이 서명 날인함

1954(4286)년 3월 6일

부의장 : 이소규

의원 : 정응표

” : 이문길

작성자 서기 : 천세봉